

경제

금호 협력업체 운영자금 확보난

2곳중 1곳 광주은행서 긴급 수혈
상환 유예·인건비 등 지원 호소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한 매출비중이 20% 이상인 협력업체 2곳 가운데 1곳이 금융권에서 긴급 자금을 수혈받는 등 자금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8일부터 12일 현재까지 금호산업과 금

호타이어 협력 업체들에 대한 자금지원 금액이 155건, 384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자금지원 대상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협력업체 가운데 관련 기업에 대한 자사의 연간 매출비중이 20% 이상인 33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점을 고려하면, 절반에 가까운

업체가 자금을 지원받은 셈이다. 광주은행은 대출건수에는 1개 기업이 2개 이상 지원받은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사실상 지원받은 업체 수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신규자금 지원은 132개사 242억원이었고, 상환기일 연장 및 분할 상환금 납입유예 등은 23건 142억원이었다. 155개 업체당 평균 대출액은 2억5천여만원이었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원자재 구입, 인건비 등 운영자금 확보난을 호소했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대출을 신청했거나, 대출연장 등을 신청한 기업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미뤄 금호 협력업체들이 상당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오는 6월까지 광주·전남지역 내 금호 협력업체(매출비중의 20% 이상)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패스트-트랙(Fast-Track·일시적 유동성 지원)’을 우선 적용해 상환기일 연장, 신규 대출 등을 해주겠다고.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기아차 ‘벤가’ 레드닷 디자인상

작년 ‘쏘울’ 이어 2년 연속 수상



기아자동차가 유럽시장을 겨냥해 개발한 전륜구동인 소형 다목적차량(MPV) ‘벤가(Venga)’가 ‘2010 레드닷 디자인상’의 수송 디자인 분야에서 우수상을 받게 됐다. iF 디자인상, IDEA 디자인상과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히는 레드닷 상은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주관해 혁신성, 기능성 등 다양한 평가 기준에 따라 매년 분야별 수상작을 결정한다. 올해 레드닷 디자인상의 제품 디자인 부문에는 57개국의 1천636개 업체가 4천252개 제품을 출품해 본

아별로 경쟁을 벌였다. 벤가는 지난해 iF 디자인상 수상에 이어 이번 수상으로 유럽시장에서 기아차의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높일 수 있었다. 기아차는 ‘쏘울(Soul)’이 지난해 한국차 최초로 레드닷 디자인상 제품 디자인 부문에서 수상했고, 올해 벤가의 수상으로 2년 연속 레드닷 상을 받게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 고용시장 봄바람

생산기술직 인력 수요 전년비 77% 늘어

박찬구 전 회장 경영복귀
금호석유화학 회장 선임

박찬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화학부문 회장이 금호석화 최고경영자(CEO)로 경영에 복귀했다. 박 전 회장의 경영복귀는 지난해 7월 말 일명 박삼구 그룹 명예회장과 같은 날에 불명예 퇴진한 지 8개월 만이다. 금호석유화학은 15일 오후 이사회를 열어 박 전 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전 회장은 지난해 1월 재단과 합의한 금호석화 경영정상화 방안이 따라 경영에 복귀하게 됐다. 박삼구 명예회장과 기속 전략경영본부 사장은 30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금호석화의 등기이사직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을 들어 광주지역에서 생산기술직을 중심으로 인력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광주전자·대우일렉트로닉스 등 광주지역 주요 대기업들이 생산라인을 본격 가동하면서 협력업체들의 인력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5일 생활구인전문업체 사랑방신문이 광주지역 중·소업체들의 1~2월 구인현황을 분석한 결과, 구인 건수는 모두 2만1천2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만7천750건보다 19.7%

증가했다. 특히 생산기술직 구인이 1천754건으로 지난해 988건보다 무려 77.5%(766건)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간호사·간호조무사 등 의료직은 1천567건으로 지난해보다 40.4% 늘었고, 영업판매직(1천535건)도 37.9% 증가했다. 운전직과 자동차 관련 직종도 지난해보다 각각 42.1%, 103.8% 늘어 활발한 구인활동을 보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주부들 장바구니 실속형으로

고기·라면 늘고 냉장·냉동식품 줄어

경제위기 후 주부들의 장바구니가 실속형으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외식 대신 집에서 직접 조리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웰빙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축산물, 수산물, 라면 등의 소비는 늘어난 대신 냉장·냉동식품은 감소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날스컴퍼니와 함께 전국 3천163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해 15일 발표한 ‘소비자 장바구니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주부들은 축산물 구매를 전년 대비 10.9% 늘렸으며, 수산물(6.8%), 라면(4.8%), 농산물(1.6%) 등도 많이 소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냉동·냉장식품의 구매는

14.0% 줄었고, 이·미용품(-12.8%), 주류(-6.2%) 등도 감소했다. 대한상의는 “경제위기와 웰빙 트렌드에 따른 이 같은 추세는 20, 30대 가정 등 젊은 층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40, 50대의 장바구니 무게는 줄었지만, 20, 30대는 오히려 늘어났다. 경제위기 후 1년간 40대 가장은 4.0%, 50대는 1.1% 각각 지출이 감소한 데 비해 20대는 8.1%, 30대는 4.2% 증가했다. 또 주부들의 1회 평균 구매 금액은 경제위기 전인 2008년 2만2천88원에서 지난해에는 2만1천979원으로 줄었다. /연합뉴스

건설협회 전남도회
지문등록 불편 해소
지역에 출장소 운영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회장 이상현·부국건설 대표이사)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지문인식 전자인찰 제도’와 관련, 회원사들의 지문등록 업무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조달청과 협조해 지역 현장 출장소를 임시 운영한다.

임시 등록 사무소는 동부권(순천·여수·광양·보성·고흥 소재 1천257개 회원사)의 경우 순천시 연향동 전문건설공제조합 순천지점에서 15일부터 19일까지, 서부권(목포·신안·완도·진도·해남 소재 733개 회원사)는 목포시 명운동 목포출장소에서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운영된다.

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062-3838-8450. /박정욱기자 jwpark@

Table with 2 columns: Index and Value. Includes 코스피지수 (1,649.50), 코스닥지수 (517.75), 금리 (3.93%), and 원·달러 환율 (1,134.70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오후 광주시 북구 오룡동 정부광주합동청사 내 회의실에서 금호타이어 노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쟁의 조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조정을 시도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금호타이어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 주목

법원 인용뒤 파업팬 하루 1억원씩 물어야

금호타이어가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응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면서 법원의 결정이 주목되고 있다. 15일 광주지방법원 등에 따르면 금호타이어는 지난 12일 “구조조정을 반대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시설관리와 영업권 보호를 위해 쟁의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며 급속노조 박유기 위원장과 금호타이어노조 고광석 위원장 등 2명을 상대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광주지법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관련 노사 대표들을 불러 양측의 변론을 들을 예정이다. 금호타이어는 신청서에서 “구조조정 반대 목적의 노조 쟁의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결코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노조가 전면 파업에 돌입할 경우 회사가 입게 되는 매출 손실은 하루 약 60억원, 영업손실은 약 5억~6억원에 달한다”며 “따라서 가처분 위반시 하루 5천만원씩 총 1억원의 간접 강제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구조조정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와 관련된 집단적 문제”라며 “합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는 만큼 쟁의행위가 불법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처분 노조 파업을 놓고 노사간 ‘불법’ 논쟁이 일면서,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이 회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노조의 파업은 불법이 되기 때

문이다. 광주지법 관계자는 “18일 오후 신청인과 피신청인 양측을 소환해 심문할 계획”이라며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1~2주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 파업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금전적 부담도 부가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2008년 4월 바이오하이디스테크놀로지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위반행위에 대해 하루 1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청주지법은 2006년 1월 하이닉스의 사내하청지출금지 가처분 위반에 대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이행 명령을 결정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원태 前금호고속 사장
대한통운 대표이사 선임

대한통운은 15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대표이사에 이원태 전 금호고속 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선임 대표는 1972년 금호석유화학으로 입사해 금호타이어와 아시아나항공, 금호고속 등 그룹의 주요 계열사를 거쳐 지난 1월 대한통운 사장직을 맡았다. 대한통운은 또 기속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한통운은 15일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대표이사에 이원태 전 금호고속 사장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 선임 대표는 1972년 금호석유화학으로 입사해 금호타이어와 아시아나항공, 금호고속 등 그룹의 주요 계열사를 거쳐 지난 1월 대한통운 사장직을 맡았다. 대한통운은 또 기속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선으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인오실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토지매매, 건물매매. 위치, 면적, 용도, 평당금액, 상무지구, 1,652㎡ (500), 상업, 1,100만원. 2,247㎡ (680), 상업, 1,200만원.

사원 모집. 당사는 부동산 중개, 분양, 경·공에 개발 전문회사로서 사세확장에 따라 참신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경리, 개발, 아파트, 토지, 상가, 빌딩, 프랜차이즈, 경·공매. 지원자격: 경리: 여 0명, * 초보지 및 경험자. 개발: 남,여 0명, * 관련전공학과 이수자, * 유 경험자. 아파트: 여 00명, * 유 경험자. 토지: 남,여 00명, * 초보지 및 경험자. 상가: 남,여 00명, * 초보지 및 경험자. 빌딩: 남,여 00명, * 초보지 및 경험자. 프랜차이즈: 남,여 00명, * 초보지 및 경험자. 경·공매: 남,여 00명, * 유 경험자.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자선동 714-73 12층(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제매물관리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제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금계산서 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 명도 / 정확한 권리분석 / 최상의 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